

월출산 천황사 일대 관광·휴양단지 조성

계획 입안 6년만에 용도지역 변경...숙박시설 등 건축 가능
지구단위 계획 확정...영암군 역점 추진 문화관광사업 탄력

월출산 천황사 일대가 영암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휴양지구로 새롭게 태어난다. 영암군은 “최근 천황사 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종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월출산 집단시설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을 입안한 지 6년만의 결과물이다. 이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의 상향 외에도 주변의 고도제한지구에 맞게 4층 이하, 최대 20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천황사 지구에는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휴양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

영암군은 이번 지구단위 계획 확정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천황사 지구가 영암군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평 영암군수는 “영암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시설 등이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보탬이 되도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천황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민선 6기 4대 핵심발전전략 중 하나인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을 역동적으로 추진

해 영암을 사계절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머물다가는 남도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황사 집단시설지구는 지난 2010년 9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일부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문화관광스포츠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선 6기 전통평 군수 체제 이후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난 2016년 9월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지난 2월 9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승인됐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안병욱 강진부군수(왼쪽)가 최근 강진을 방문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앤서니 스넬런 농무참사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네덜란드와 화훼산업 협력 모색

주한 대사관 농무참사관 일행 재배현장 방문 상생 논의

세계 최대 화훼 생산지인 네덜란드가 강진군 화훼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앤서니 스넬런(Anthony Snellen)농무참사관 일행은 지난달 30일 강진군의 대표적인 절화작약 생산지인 마량면 ‘늘푸른나무’농장과 절화수국 재배농장인 ‘뷰티팜’을 방문, 화훼 생산과 유통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방문은 네덜란드와 강진의 화훼 분야에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작약·수국 품종들의 생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참사관 일행은 농장 방문 전 안병욱 강진부군수를 만나 화훼 산업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으며,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하멜존 조성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도 청취했다. 강진군은 절화작약이 기존 뿌리를 한약재로 이용하는 작약의 용도에서 절화로 사용될 수 있는 꽃에 주목하고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절화작약 품종 도입 선발부터 재배단지 조성 등에 집중해 2016년 기준 7ha의 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면적의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강진은 국내 절화작약 최대 생산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국내 일반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 수출 생산단지로 부상했으며, 현재 4.2ha의 면적에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만성질환자 구강보건 서비스

장흥군은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구강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진료계획을 수립해 4단계에 걸쳐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충치치료, 잇몸치료 등의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환자들의 구강관리 능력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 특히 당뇨질환자들에게서 치주질환 이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치주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는 구강보건교육과 치간 칫솔 등의 위생용품을 배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4개 사업에 23억원 지원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장흥군은 “올해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4개 사업에 23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친환경 포장재 제작, 국제시

품박람회 참가,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는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333동, 19억9800만원을 지원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을 향상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안전한 강진군

CCTV 설치 늘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강진군이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6700만원을 포함해 모두 8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군은 올 상반기 강진경찰서 뒤 주차장 부지에 346㎡ 규모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오는 9월 CCTV 통합관제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될 계획이다. 이후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관내에 설치된 CCTV 342대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때 신속한 상황대처는 물론 재난종합상황관제 기능까지 맡게 된다. 특히 기관별로 운용되고 있는 방범, 재난재해, 산불감시 등 CCTV를 통합해 관제업무 일원화를 통해 비효율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CCTV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범죄취약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낡은 CCTV를 교체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위험한 노거수 제거 영암군 영암읍 자율방재단(단장 배영수)은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등 4개마을에서 주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노거수 11주를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장흥교통-공용터미널 마찰...애꿎은 주민들만 불편

매표수수료 싸고 감정대립...승차권 거부 현금만 받아

장흥교통 군내버스와 공용정류장(터미널)간 마찰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흥교통 군내버스가 승차권을 거부하고 현금만을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농어촌 군내버스는 주로 병·의원을 찾는 노약자와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원망이 발생할 것. 이같은 사태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차고지” 변경에 따른 박차료와 매표수수료를 두고 미묘한 감정대립에 따른 것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46조)은 ‘운수사업자가 터미널측에 승차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상 장흥교통의 승차권 거부부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장흥공용정류장측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양자간 협의사항을 어겼으며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교통측은 “차고지 변경

이후 공용정류장측이 최소한 일시정차(10~20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지않고 수수료만 받고 있다. 오히려 터미널측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장흥교통은 25인승 버스를 23대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은 총 73만7000여명(1일 평균 2048명)으로, 지난해 기준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5억 2600만원, 복지노선손실보상금 8억4300만원, 학생할인손실보상금 3900만원, 유가보조금 2억1600만원, 노후차량대체차비(대당 30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운영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전면으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아이트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광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1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아울러스 인근, 6차선 대로면 접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문선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